"해직된 동료교사와 함께 가르치고 싶어요"

전교조 1주년특집 —해직교사 복직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광고와 서명운동으로 원상복직 투쟁 지속적 전개

교원의 기본권 보장이 교육의 자주성 획득 지름길

I. 전교조 1주년

5월 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탄생한 지 첫 돌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같은 날 연세대에서, 한양대에서, 건국대에서,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뜨거운 감격과 열기 속에서 결성된 전교조는 지난 1년동안 독재정권의 행정력을 총동원한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참교육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30만 교사, 1천만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전국 민적 지원과 연대투쟁으로 조직을 사수하는데 성공하였다. 여기에는 교단에서 쫓겨나 생존권을 박탈당하면서까지 전교조를 사수해낸 1600여 해직교사들이 쏟은 피와 땀과 눈물이 밑거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1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조는 5월 27일, 한양대에서 개최될 '전교조 탄압분쇄 및 합법성쟁취를 위한 창립 1주년 전국교사대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고 있다. 반민주야합에 의한 민자당독재체제의 출범과 전·월세값 폭등, 물가고 등 민중생존권 파탄으로 인한 광범위한 반민자당의식 속에서 촉발된 K.B.S방송자주화투쟁, 현대중공업투쟁, 그리고 5월투쟁 등으로 전교조조합원들의 결의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전교조는 교육내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문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문제, 국민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문제, 교원의 처우개선 및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시민적 기본권 문제, 그리고 참교육문제 등 40여년 간 누적된 교육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외적으로도 노동운동의 영역을 확산시켰으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열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였고, 교육노동자로서 특수한 위치로 인해 기층노동운동과 사무직·전문직·기술직 등 중간층노동운동을 통일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도 하다.

II. 사립학교법의 위헌성

지난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해직됐거나 직권면직된 사립학교 교사들이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동시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제 55조(사학교원의 복무에 관해서 공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것)와 제 58조 1항 4호(면직사유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제기했는데 현재 전국 각 법원에서 100여건 이상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견해로는 위 두 조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한다.

현행 헌법 제33조 1항 내지 3항에 의하면,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가지며, 방위산업체 근로자에 한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노동자)란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므로, 사학교원이 노동자에 속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또 사학교원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도 명백하다. 따라서 헌법 제33조에 의하면 사학교원에게도 노동3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의 위 조항들은 사학교원의 노동3권(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인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되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해당조문은 노동3권 그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데 이르고 있어, 사학교원에 대하여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함으로 헌법 제37조 2항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리적으로 명백히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데 있다. 특히 지난번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제청에서 헌법재판소가 생소한 '한정합헌'이라는 기회주의적 편법을 사용한 경우를 상기해 볼 때 더욱 의구심이 가는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사립학교법의 위 조항에 대한 공개심리가 열렸다. 겉으로는 위헌론과 합헌론이 팽팽히 맞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명백백한 논리로서의 위헌론에 대하여 견강부회와 궤변으로 일관한 합헌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이 위헌이든 합헌이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를 생각하고, 87년 6월항쟁의 한 성과물인 현행 헌법의 민주적 정신을 되살리고, 교육의 정상화를 하루라도 앞당기며, 해직교사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순리에 따라 위헌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당국의 궤변 중 하나가 교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은 학생은 물론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거없는 악선동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역대 독재정권에 의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유린당하고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어 온 그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야말로 교육의 자주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인 것이다. 문제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교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현 상황이 바로 모든 혼란의 주범인 것이다.

21세기를 내다보며, 이 시점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현상황이 그 주범 …

III. 해직교사 원상복직 투쟁

"우리는 해직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가르치고 싶습니다" "사립학교법 위헌결정과 해직교사의 원상복직을 촉구합니다"

지난 5월 4일, 서울 지역에서 '해직교사 원상회복 추진위원회'(위원장, 심충보, 계성여고)가 결성된 이래 5월 23일 현재까지 총 210개 학교가 광고투쟁에 참여하였고, 504개교 8146명이 원상복직요구 서명에 참여하였다.

이는 헌법 제26조((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갖는다)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로 그동안 현직교사들이 전교조와 참교육을 부르짖다 쫓겨난 동료해직교사들에 대하여 얼마나 가슴아파 했던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위는 이와같은 순수한 동료애적 충정과 국민의 기본권 행상에 대하여 집단행위 운운하면서 심지어 징계하겠다고까지 하며 갖은 협박과 방해공작을 서슴치않고 있다. (최근 전국의 사립학교에서 교장에 의해서 앞에서 언급한 사립학교법에 대한 합헌서명을 강요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이 만저만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청원법 제1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받지 않는다'라고 하여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2조에 '공무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특별관계가 국민의 일반적 권리를 규정한 일반관계와 상충할 때는 특별관계에 따른 법적용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체주의국가시대 유물인 특별권력관계론을 들먹이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신분이 공무원이긴 하지만 청원서명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최근 '한국교육연구소'에서 전국의 현직교사 5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현안과 교원단체에 관한 의식조사'에 의하면 해직교사의 복직문제에 관하여 59.6%가 전원 무조건 복직되어야 한다, 37.1%가 구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에 응답함으로써 해직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가 96.7%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철 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규국장〉

선생님 처벌은 안돼요

의존성 타파해 온 인류의 역사

자주성 기초한 공동체적·자유주의적 삶 절실

데스크 칼럼

정 연 욱
〈본보 편집장〉

인류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화되는 그때서부터 자연과 사회·인간에 대한 의존성에 대립, 자신의 자주성을 고양, ·발현시키는 가운데 굴레를 깨부수고 역사를 이끌어 왔다.

인간은 인간자체의 변화, 즉 인간을 그 내부로부터 의존·예속시키는 낡은 사상·문화·의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여 왔으며, 그럼으로써 새로운 사상·문화·의식을 창조하면서 스스로가 운명의 주체가 되었다.

지난날 통치자를 하늘처럼 모시며,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따랐던 민중들은 이제는 '우리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라고 외치며 역사의 주체임을 조금씩 인식·실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자연·사회·인간 전체에 대한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스스로 자연·사회의 주체로서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해온 투쟁의 역사인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대개 백만년이라는 긴세월을 이어져왔다고 이야기 되어진다. 그중 99만년은 문명이전의 시대로 이 기간에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연을 변혁시키면서 스스로 보다 높은 자주성을 지니게 되었다.

백만년이라는 긴 시간에 비하면 새롭게 전개된 문명시대는 불과 몇천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볼때, 자연·사회·인간에 대한 인간의 역사가 자주성과 의존성의 싸움의 역사라는 명제는 인간의 역사속에서 총화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속과 의존의 틀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지위를 유지해온 지배자들은 자주성을 이해할수도, 실현할 수도 없다.

지난날 예속·의존의 틀속에 고정되어, 민중을 억압하며 사회정치적 변혁을 가로막고, 자연변혁의 단맛만 본 지배자들은 규정되어진 노동과정속에서 삶을 꾸려나간다면 새로운 미래사회를 더불어 함께 할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지배자들은 결코 스스로 참 노동의 과정에 동참하려 하지 않고, 변혁이후에도 자신의 사회·정치·경제적 틀을 벗어나려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자본에 의한 의존·예속의 굴레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 외세지배하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은 다른 계급에 비해 보다 앞장서서 의존성을 무너뜨리고, 자주성을 배가, 발현시키며 자주성실현의 전형을 발굴·계승하여 왔다. 노동계급은 자본에 굴레속에서 변증법적 역사관의 의의를 알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바로 설수 있게 되었다. 농민계급 역시 보다더 심한 외세 지배하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지주들로 부터 갖은 억압과 착취를 당해오면서, 그들 스스로 외세의 억압과 그 지주들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면서, 자주성 실현에 한발 한발 나가게 되었다. 청년학생들 역시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것을 올바로 탐구하면서, 외세지배의 본질을 드러내며, 사상·과학·이론의 전도자로서 각계각층의 민중들 의식고양에 도움을 준것 또한 커다란 의의로 볼수 있다.

이처럼 그 사회의 각계각층의 모든 민중들의 자주성은 역사의 수레속에서 점진적으로 발현되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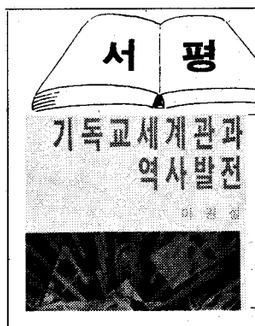
자주성을 기반으로 한 삶은 의존·예속의 틀을 깨뜨리는 가장 건실한 삶의 자세이다.

개인스스로가 자주성을 기초한 자유주의적 생활을 준비·실현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이꾸려 나갈때, 인간의 삶의 자세는 역사의 수레속에서 보다 진보적이고, 전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갈라진 조국에서, 분단된지 46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바른 삶의 자세일 것이다.

서평

이 원 설 著
혜선 출판사 刊



기독교적 세계관과 역사발전

현실 인식한 기독교 세계관의 학술적 접근시도 돋보여

역사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힘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자 하는 최대의 관심사중의 하나가 되어왔다. 특히 오늘과 같은 불확정, 급변의 시대에는 그같은 요구가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때 역사학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분야에 깊은 연구를 진행해 오던 이원설박사가 그동안의 연구성과의 결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독교세계관과 역사발전'이라는 주제의 책을 펴낸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저자는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세계관(Weltanschauung)이라고 거의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그가 정신적존재(a psycho-spiritual being)"이기 때문이며 개개인의 "정신구조와 정신풍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세계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자는 본서를 7장으로 나누어 자기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역사의 원동력을 검토하는데, 이들을 자연적요인, 사회적요인, 인간적요인, 정신적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에 대한 기왕의 논쟁과 그 가능성과 한계점을 점검하고 있다.

제2장 세계관과 그 유형에서는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를 여러학자들의 논설을 중심으로 논하고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어 제3장에서는 자연중심의 세계관과 그영향을, 제4장에서는 하나님 중심세계관과 그 영향을 제5장에서는 인간·기술중심의 세계관을 논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자기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한 서론적, 예비적, 준비적 고찰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6장에서는 새로운 세계관의 모색이라는 주제아래 본격적인 자기의 확신과 주장을 앞서의 논의에 근거하면서 전개시키고 있다. 자신의 가설을 모색이라고 하면서도, 세계관의 새로운 틀을 제시해 보려는 그의 의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기왕의 세계관에다 "새(新)"자를 붙여서 새자연중심세계관, 새인간중심세계관, 새사회중심세계관, 새기술중심세계관의 논지를 일목요연하게 펴고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중심세계관"을 부르짖고 있다. 저자는 또한 이론적 접근에 머물지 않고, 그같은 그의 가설을 한국의 미래와 현실(제7장)에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성실성이 돋보인다.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필자는 종교를 꼽고 있다. 물론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데는 기후, 지형, 토양, 유전, 사회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힌두교, 불교, 유교, 모하메트교, 기독교등이 보여준 것처럼 상이한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저자는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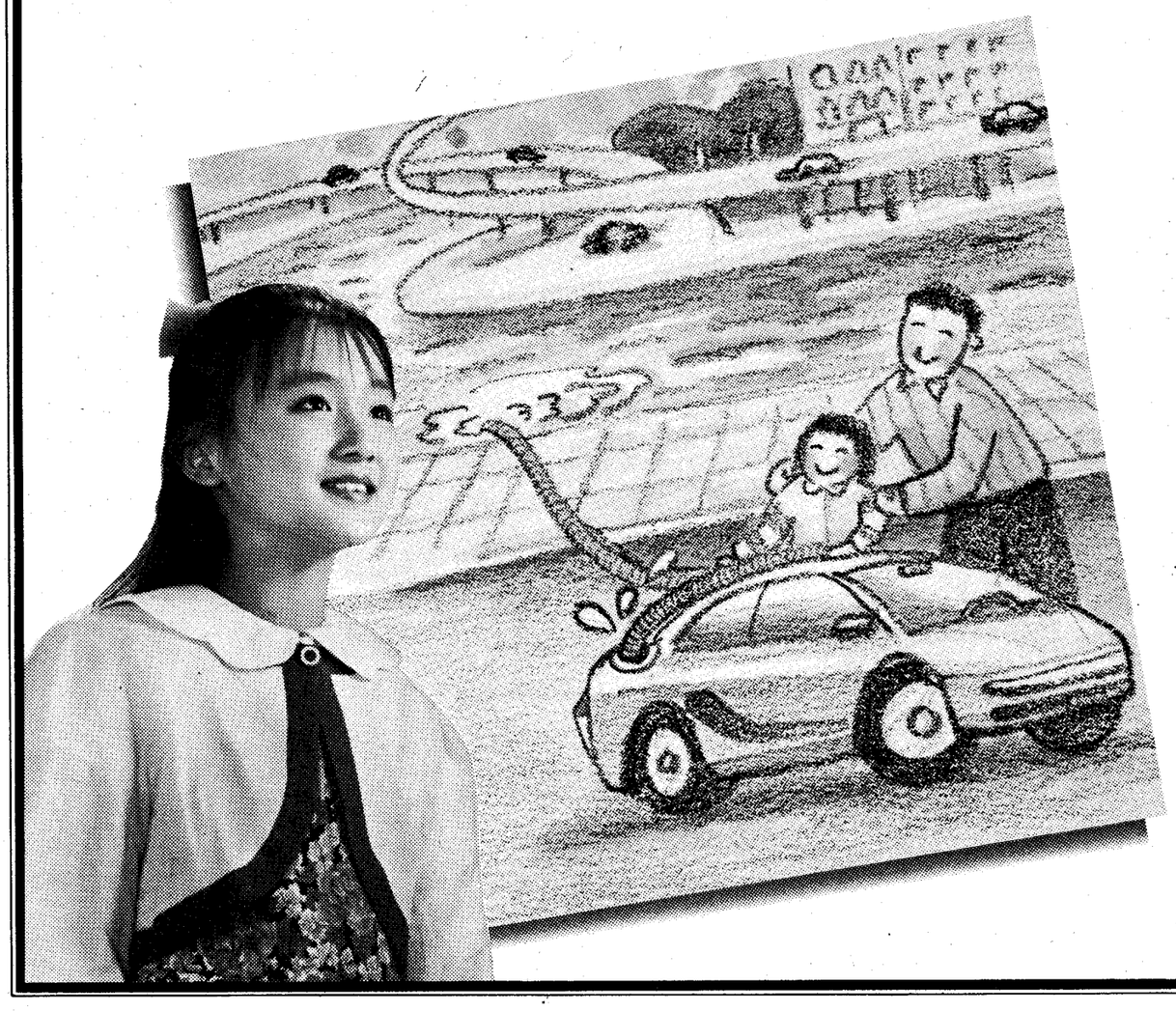
기독교신관은 서구문명에 있어서의 과학 정치, 경제, 역사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것은 자연을 신격화하지 않고, 신비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적 인간관은 이성을 신뢰치 않고 실험을 통한 증명을 시도했다. 뿐만아니라 성서는 베버의 대표적 논의처럼 자본주의 윤리의 한 근간이 되었다. 사실 기독교는 금욕적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이익추구심 보다는 본질적으로 금욕적인 정신이 낳은 축재를 재투자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저자는 본다. 정치사상면에서도 권력의 비절대화는 기독교적 평등사상과 계약사상, 그리고 제한된 국가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역사사상과 실재에 미친 영향도 심대한데, 역사론 표면적현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저변에 흐르는 동력의 측면에서 역사를 보려는 역사철학적 발상이 또한 기독교적 역사사고에 연유한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지역사에서 세계사적 국면으로 확대시키고, 시간관에 대한 목적론적 사관을 제기한 것도 기독교의 영향이다.

요컨데 저자는 기독교세계관을 현실역사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역설적"요체로 이해하고 있다. 자유를 창조의 토양이라고 보면서도 저자는 사람의 자유보다는 더높은 인격을 신에 예속시킬때 거기에는 더 큰 자유의 영역이 확보 된다고 믿는다.

요컨데 저자는 기독교세계관이 왜 이 시대의 불안과 위기, 불확실성에 대한 확실한 답안가를 매우 학술적으로 접근하며 답하고 있다. 이 시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믿어 일독을 권한다.

김 성 철
〈행정학박사·
전주대지역학대학장〉

작은 꿈들이 모여 힘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③



"오빠./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있다면 참 좋을거야. 그렇지?"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물은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수소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단다. 따라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그 에너지를 힘으로 사용할수만 있다면 맹물로 가는 자동차도 만들 수 있을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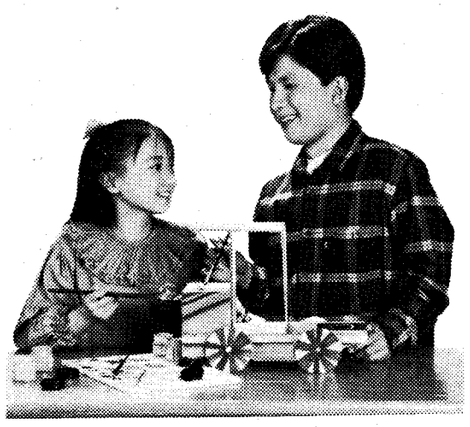
자동차가 맹물로 가게 되면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기름 걱정 안해도 될거고, 또 수돗물을 넣고 신나게 달리다 다시 시냇물 한바가지 부어넣고 부웅— 정말 편하고 좋겠지?

그런데 메틸 알코올로 가는 자동차를 개발해서 시험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왔지만 아직 아무도 이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완성시키지 못했단다.

그러니까 윤정이가 지금부터 꿈을 갖고 연구해서 만들어보렴. 지금까지 세상을 편리하게 만든 크고 작은 발명품들도 처음엔 모두 작은 꿈으로부터 시작했단다.

상상해봐./ 맹물로 가는 자동차의 여류발명가 조윤정— 정말 멋지고 신나지 않겠니?

S대 화학공학과 2년 조 준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은 꿈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HD 現代自動車